

전북지역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

2023. 1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보도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작성자 : 기획조사팀 함 건 과장, 업무팀 황호찬 조사역
조언자 : 이승철 기획조사팀장



목 차

[요약]

I. 검토 배경	1
II. 전북지역 자영업자 현황	2
III.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특징	6
IV.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점검	13
V. 평가 및 시사점	17

[참고문헌]

[요약]

① [자영업자 현황]

- **(자영업 업황)** 코로나19 이후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은 지역경제 둔화, 관광객수 감소 등으로 우호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자영업은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높았으며 평균 매출액은 지방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창업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에 힘입어 폐업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 **(자영업자 규모 및 구성)** 전북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26.5%)은 전국(20.1%)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업종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56.2%)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4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② [자영업자 대출* 특징]

* 본고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을 「한국은행 가계부채DB」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으로 정의

- **(대출잔액 및 차주수는 증가세, 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감소세)**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023.2/4분기 기준 27.1조원으로 지역 경제규모 (GRDP 기준) 대비 비중(48.9%)은 전국(4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2년 중 연평균 13.3%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차주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1인당 대출잔액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출잔액이 증가)**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의 업종별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23%), 부동산업 및 임대업(20%), 숙박 및 음식점업(1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기간 중 해당 업종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확대되었다.
-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확대)**
자영업자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코로나19 유행 전후(2020~22년) 연평균 20.7%의 증가세를 보여 자영업자 대출 내 비중이 57.1%로 확대되었다(23.2/4분기 기준).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56.3%를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은 2020~22년 중 연평균 22.3% 증가하였다. 이는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차주 특성별로는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대출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확대)

고소득 및 고신용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비중은 각각 66.8%, 73.2%(23.2/4분기 기준)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계층의 대출 비중은 소폭 늘어난 반면 저신용 계층의 대출은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대출잔액 비중이 64.8%로 가장 컸으나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비중이 축소)

*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로 정의

취약차주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취약차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결과,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감소하였으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대비 비중도 축소되었다. 한편 취약차주는 비취약차주와 비교해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동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정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부실화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대출 리스크 점검]

-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2021년 이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대되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확대는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이 2018년 이후 하락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은 여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및 소득증가 여력이 적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 한편, 최근 전북지역 자영업자 사업장당 평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체차주 비중은 최근 상승)

전북지역 자영업자 연체차주 비중은 19.3/4분기 2.6%에서 22.2/4분기 1.5%까지 하락하였으나 올해 들어 확대되면서 최근(23.2/4분기 기준) 2.4%를 기록하였다. 차주 특성별로는 저신용층 내 연체차주 비중이 확대되었다.

4 [평가 및 시사점]

▪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부채 관리)

역내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채무 재조정, 대환 프로그램 등의 활용을 유도하여 개별 차주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¹⁾', '새출발기금²⁾' 뿐 아니라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각종 특례보증 상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매출 등 경영상황, 보유자산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DB 구축 등을 통해 포괄적인 상환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 예정자 앞 업황·경쟁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자영업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창업 분야의 다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경쟁이 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전라북도 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한 매출 증진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판매·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운영 인터넷 플랫폼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라인 쇼핑물 입점, 홈쇼핑 판매 등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판매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자영업자 대출자금 활용의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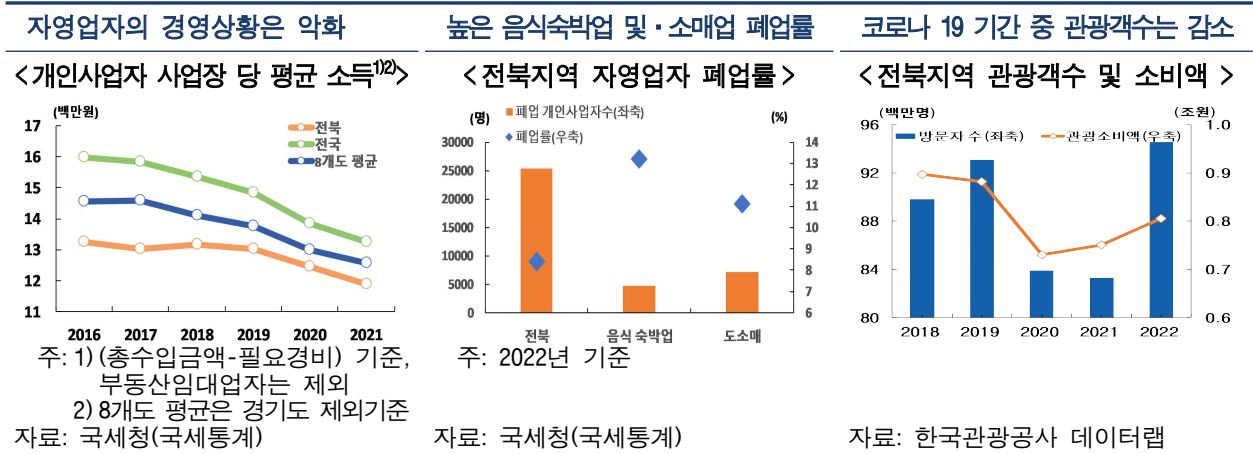
전북지역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잔액 비중 증가 흐름을 감안하여 이전 직장경력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통해 고령층 소득기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금지원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 저신용 차주의 대출잔액 비중이 낮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폐업과 순조로운 사업전환이 가능하도록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취업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보증·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과중한 부채부담을 확인할 경우 사업주를 폐업·재기 지원 및 신용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22.5월말 이전 취급분)을 대상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대환 한도 내에서 상환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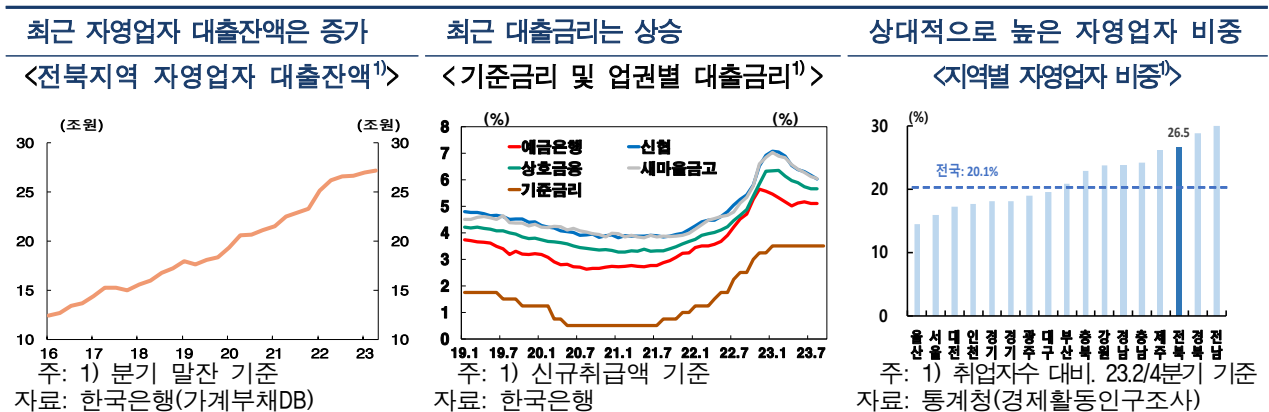
2)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부실차주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사업자대출·가계대출(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등 최대 15억원)에 대해 원금조정,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한다.

I. 검토 배경

1. 저성장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³⁾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반면, 대출 규모는 정부 금융지원 조치⁴⁾ 등으로 인해 빠르게 확대되었다. 전북지역 개인사업자 사업장 평균 소득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폐업률은 2022년 기준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폐업률⁵⁾이 각각 13.2%, 11.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관광객 및 유동인구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2.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부채 총량에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이 가세하면서, 전북 지역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약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지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자영업 경영상황 악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북지역 자영업자 현황과 대출의 특징을 금융기관, 차주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근 경제상황에 비추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점검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 자영업자는 통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지칭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자영업자의 정의’ 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정부의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을 참조하기 바란다.
 5) 당해연도 폐업 개인사업자수 ÷ 전년도말 개인사업자수로 산출하였다.

II. 전북지역 자영업자 현황

◆ 자영업 업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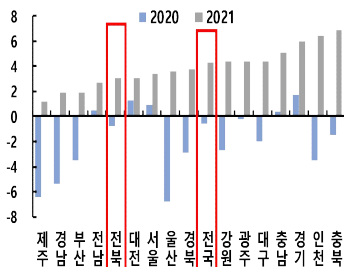
3. 코로나19 이후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은 지역경제 둔화, 관광객수 감소 등으로 우호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북지역의 경제성장률은 -0.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0.6%)을 하회하였다.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증가 전환(3.1%)하였으나, 회복세는 전국 평균(4.3%)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0~21년 중 전북지역 방문객은 코로나19 이전인 18~19년 대비 8.6% 감소하며 2022년 중 폐업 관광사업체가 늘었다. 한편, 생산자물가는 2021~22년중 전년동월대비 평균 7.4% 상승하였는데, 이에 따라 영업비용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세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부진

폐업 관광사업체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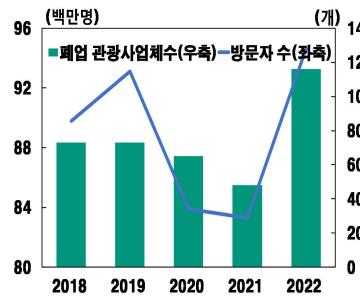
생산자물가는 높은 수준 지속

<지역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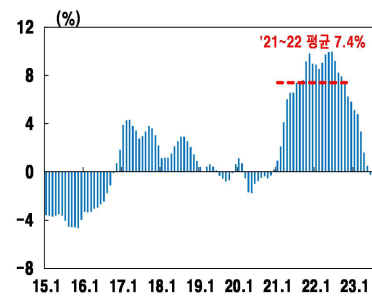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방문객 및 폐업 관광사업체>



자료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생산자 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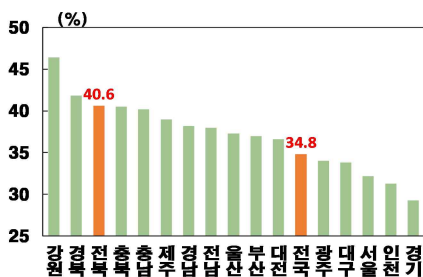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4. 전북지역 자영업은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높았으며,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은 지방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전북은 최저 구간인 5천만원 미만 비중이 40.6%로 전국 평균(34.8%)을 상회하였다. 17개 시도 중 강원과 경북만 전북보다 높은 영세 사업체 비중을 보였다. 전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억원(2021년 기준)으로 지방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 매출액은 2.6% 증가해 지방 평균(3.4%)을 하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높은 영세 사업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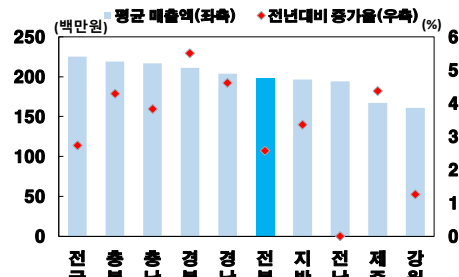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지방 평균 수준

<영세 사업체¹⁾수 비중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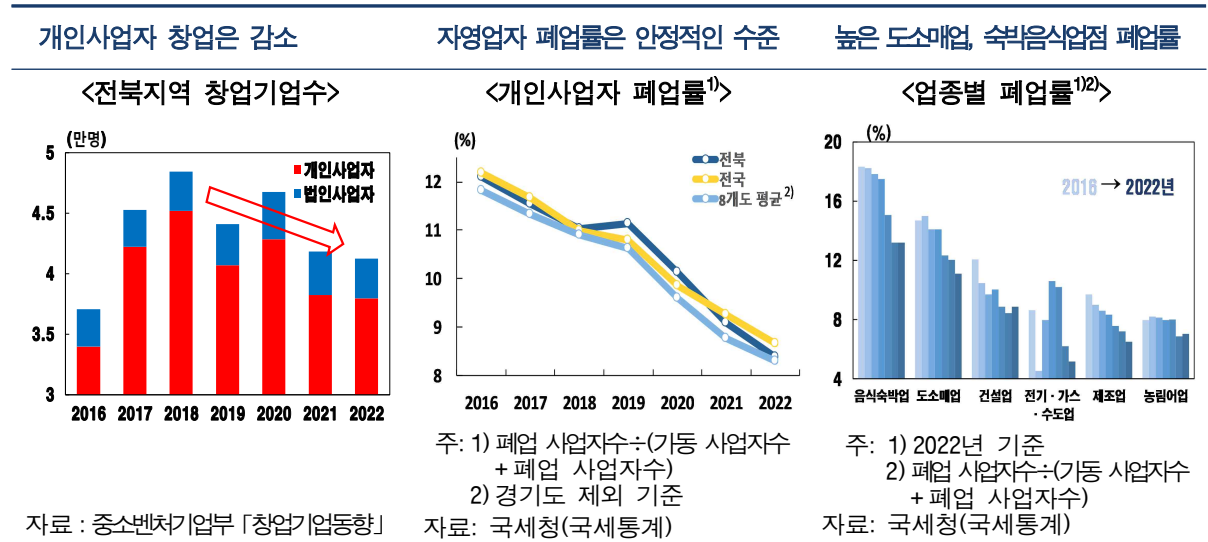
주: 1) 매출액 5천만원 미만 2) 2021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매출액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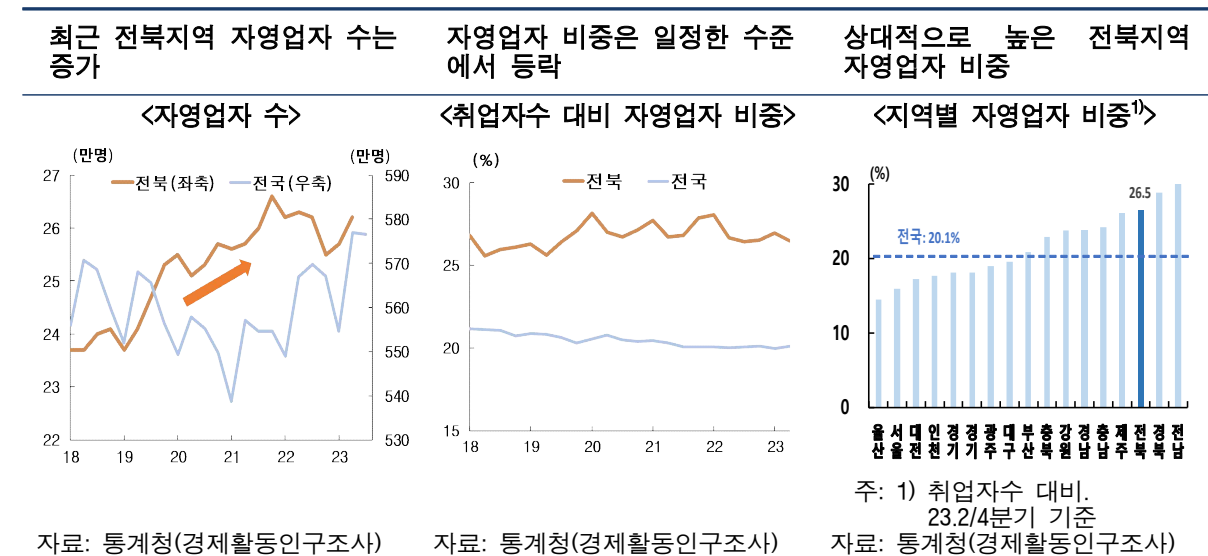
주: 1) 2021년 기준, 2) 지방은 경기도 제외 8개도 기준
자료 : 소상공인실태조사

5.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창업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에 힘입어 폐업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 창업은 2018년 4.5만건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3.8만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16년 12.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8.4%를 기록하였다.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대책에 더해 창업건수 감소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이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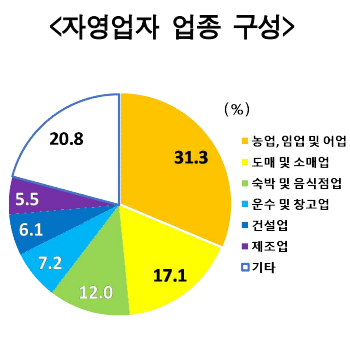
◆ 자영업자 규모 및 구성

6. 전북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최근(23.2/4분기 기준)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6.5%로 전국(20.1%)을 상회한 가운데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7.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56.2%)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 자영업자의 서비스업(56.2%) 및 제조업(5.5%) 비중은 전국(각각 69.8%, 8.4%)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농림어업 비중(31.3%)은 전국(13.1%)을 크게 상회하였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평균과는 업종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업종별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내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및 8개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분포는 서비스업, 농림어업 부문에 집중 자영업자 업종 구성에 있어 8개도 평균과의 차이는 미미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내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및 8개도 평균보다 높음



주: 1) 2020년 종사자수 기준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자영업자 업종 구성¹⁾ 비교〉

업종	전북	8개도 평균	전국
서비스업	56.2	56.5	69.8
도·소매업	17.1	15.7	20.6
숙박음식업	12.0	14.5	14.0
운수창고업	7.2	6.8	8.6
농업, 임업 및 어업	31.3	30.5	13.1
제조업	5.5	5.7	8.4
건설업	6.1	6.4	6.8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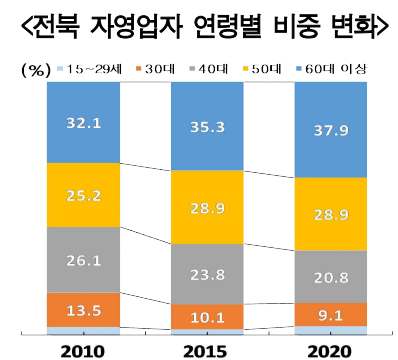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 비교¹⁾〉

업종	전북	8개도 평균	전국
전체	24.3	23.9	19.4
서비스업	21.2	21.9	20.1
도·소매업	38.1	36.4	29.9
숙박음식업	37.6	39.3	33.0
운수창고업	41.9	36.9	31.9
농업 임업 및 어업	60.8	59.4	59.0
제조업	9.3	9.7	9.3
건설업	23.9	23.8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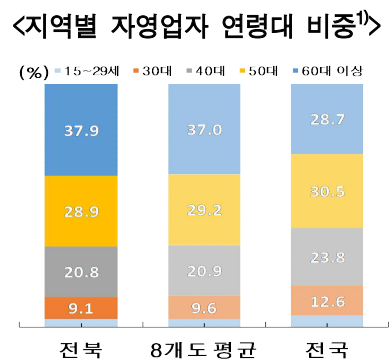
주: 1) 2020년 전체 취업인구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4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37.9%로 10년 전과 비교해 5.8%p 늘었다. 반면, 30~40대의 비중은 29.9%로 9.8%p 감소하였다. 이는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청년층 인구가 유출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8~22년중) 전북지역 15~29세 및 30~49세 인구 모두 연평균 3.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 60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3.5% 증가하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전북지역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37.9%)은 전국(28.7%)이나 8개도 평균(37.0%)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30~49세 자영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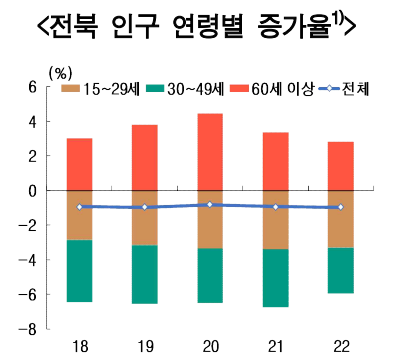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전북의 높은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전북지역 인구 구성의 고령화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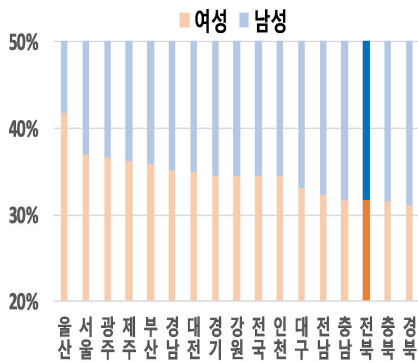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전북지역 자영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31.7%(2020년 기준)로 전국(34.5%), 8개도 평균(33.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자영업자 성별을 비교해 보면 음식숙박업(53.1%), 도소매업(38.0%) 등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운수창고업(2.9%), 건설업(5.5%) 등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전북지역 여성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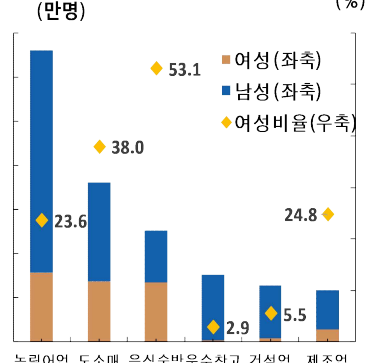
<자영업자 성별 비중¹⁾>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여성 자영업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주로 종사

<전북지역 자영업자 성별 종사 산업 비중¹⁾>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III.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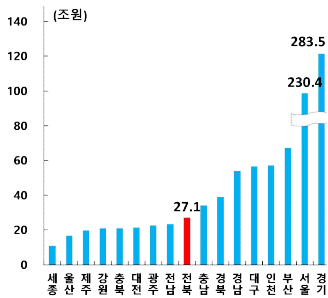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을 「한국은행 가계부채DB」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으로 정의(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자영업자 대출 이용통계 및 분석범위' 참조)

1. 대출잔액 및 차주수는 증가세, 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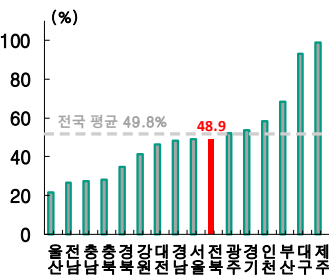
9.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3.2/4분기 기준 27.1조원으로 지역 경제규모 (GRDP 기준) 대비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GRDP 대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비율은 48.9% 수준으로 전국 평균(49.8%)을 하회하였다. 지역 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잔액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 대비 대출잔액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산, 인천, 대구 등 경제규모가 큰 일부 광역시의 경우 낮은 자영업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대출잔액이 큰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을 자영업자 수로 나눈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약 1.04억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1.81억원)을 하회하였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광역자치단체 중 9번째로 많은 수준 | 경제규모 대비 자영업자 대출 잔액 비중은 전국 평균을 하회 | 자영업자 비중 대비 대출잔액은 다소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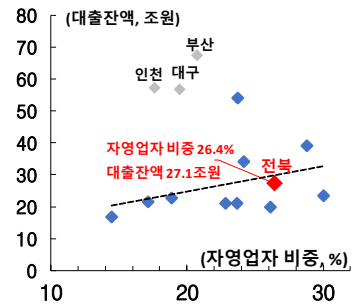
<지역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¹⁾>



<지역별 GRDP 대비 자영업자 대출잔액¹⁾²⁾>



<자영업자 비중 및 대출잔액¹⁾³⁾⁴⁾>



주: 1) 대출잔액은 23.2/4분기 기준
2) GRDP는 2021년 기준
3)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수 대비, 23.2/4분기 기준
4) 서울, 경기 제외, 추세선은 부산, 인천, 대구 제외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통계청(지역소득),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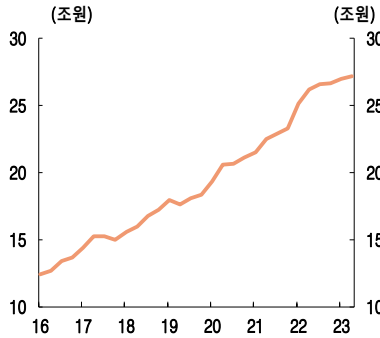
10.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2년 중 연평균 13.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부진에 더해 동기간 중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대출은 대체로 전국 및 여타 지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 중 증가율은 전국(14.1%) 및 지방(14.5%)의 증가율을 하회하였다. 대출 구분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대출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을 상회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된 23.1/4분기 이후 대출 확대세는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으며, 2/4분기에는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꾸준히 상승

전북지역은 전국 및 여타 지방과 비슷한 흐름을 보임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폭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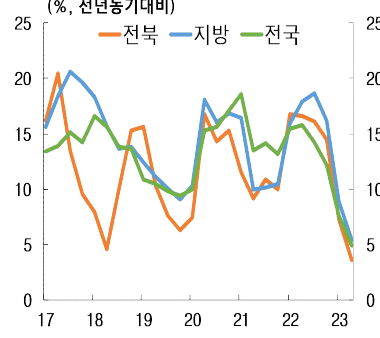
<지역업자 대출 잔액¹⁾>



주: 1) 분기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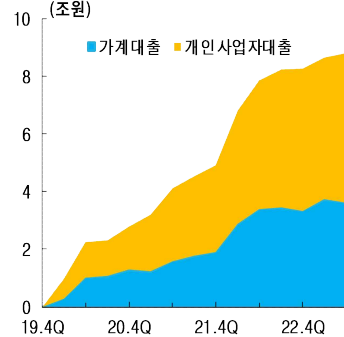


주: 1) 분기 말잔 기준

2) 지방은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증감¹⁾>



주: 1) 19.4분기 대비

(분기말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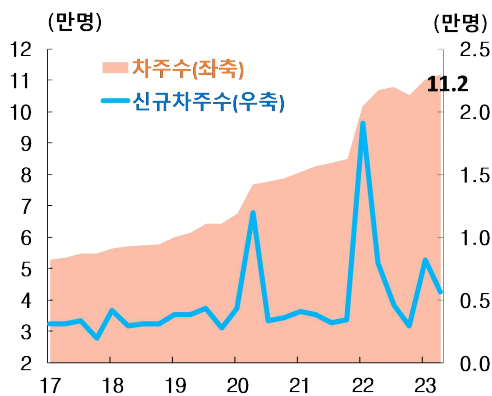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11. 전북지역 자영업자 차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1인당 대출잔액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차주수는 23.2/4분기 기준 11.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차주⁶⁾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⁷⁾ 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3.2/4분기 2.4억원을 기록하였다. 신규 차주의 경우 대출잔액이 기존 차주보다 작은 경향⁸⁾이 있어 2022년 중 신규 차주의 급증으로 1인당 대출잔액이 상당폭 축소되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차주수는 꾸준히 증가

전북지역 자영업자 차주 1인당 대출금액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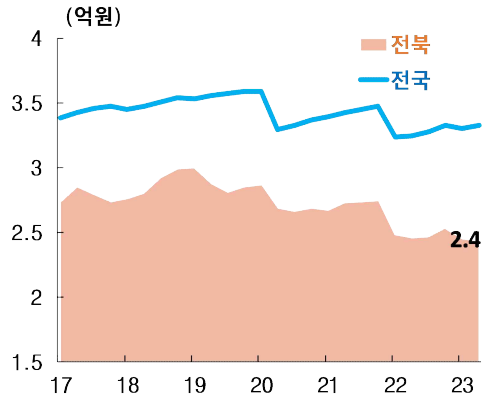
<차주수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차주 1인당 대출금액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6) 직전 분기에 개인사업자대출이 없었던 차주를 신규 차주로 식별하였다.

7)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0.9만명, 전년대비)하였다가 2022년 들어 다시 증가(+2.0만명)하였으며, 23.1~2/4분기 중에는 1.3만명 가량 감소하였다.

8) 1인당 평균 대출잔액(19년~23.2/4분기): 기존 차주 2.7억원, 신규 차주 1.7억원

2. 업종별⁹⁾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출잔액이 증가

12.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의 업종별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업종의 대출잔액 비중은 57.3%로 전북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차주 비중도 59.5%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잔액 비중은 37.6%로 지방 평균(38.8%)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국(30.6%)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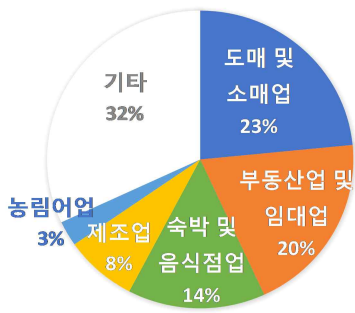
13.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세 업종의 2020~22년중 대출잔액 증가액은 전체 산업의 46%를 차지하였다. 동 기간 중 차주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차주수는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대출잔액 비중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음식점업 순으로 높았음

대출잔액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차주수는 숙박음식점업에서 크게 증가

증가율 기준으로는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이 각각 대출잔액 및 차주수에서 가장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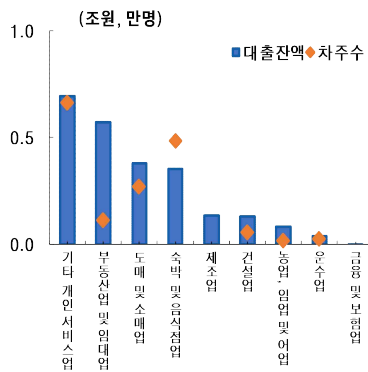
<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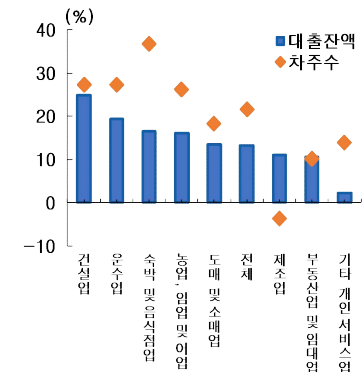
주: 23.2/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업종별 자영업자 대출 증감¹²⁾>



<업종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¹⁾>



주: 1) 2020~22년 중 연평균 기준 증감(말잔 기준)

2) 업종 식별 불가 대출의 경우 식별가능 대출의 업종별 비중을 곱해 각 업종에 더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대출잔액 및 차주수를 추산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9) 원자료의 표본 개선으로 23.1/4분기 자료부터 대출의 업종 식별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전 시점과의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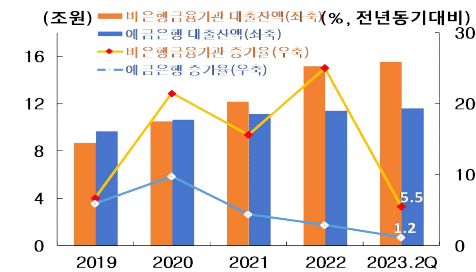
3.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확대

14.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유행 전후(2020~22년) 연평균 20.7%의 증가세를 보이며 예금은행 증가율(5.7%)을 상회함에 따라 2021년 이후 예금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3.2/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다소 축소되었다. 자영업자 대출 내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은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3.2/4분기 현재 57.1% 수준이며 예금은행의 비중은 2019년말 52.8%에서 42.9%로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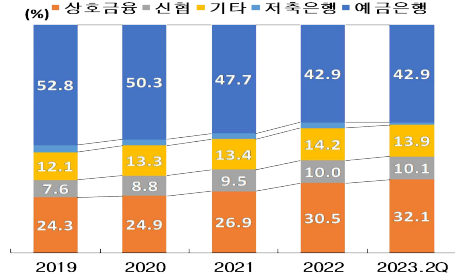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를 주도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은 확대

<금융기관별 대출잔액 및 증가율¹⁾>



주: 1)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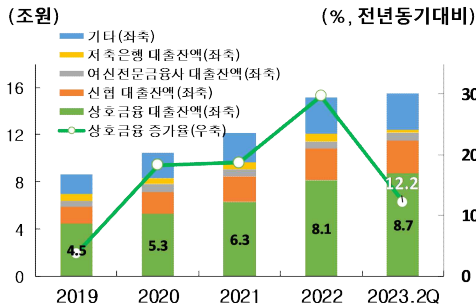
주: 1)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15.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은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56.3%(23.2/4분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상호금융은 2020~22년 중 연평균 22.3% 증가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12.2% 증가에 그쳐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상호금융 비중은 32.1%로 전국 평균(19.0%)보다 높았으나 지방 평균(32.2%)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이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증가세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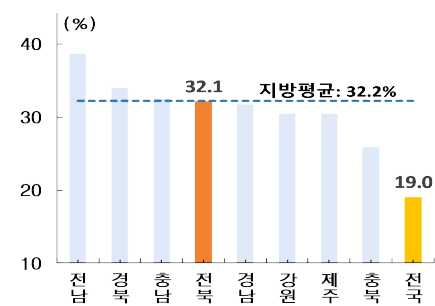
<비은행금융기관별 대출잔액 및 증가율¹⁾>



주: 1)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상호금융 대출 비중은 지방 평균 수준

<지역별 자영업자 대출 상호금융 비중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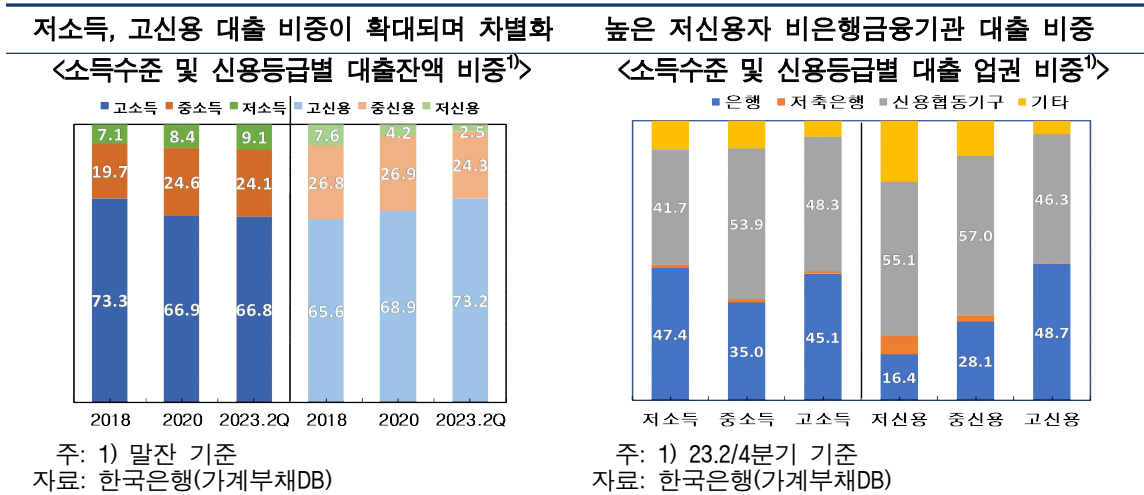
주: 1) 지방은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2) 23.2/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4. 차주 특성별로는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대출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확대

* 소득 하위 30%는 저소득, 소득수준 30~70%는 중소득, 소득 상위 30%은 고소득으로, 신용점수 664점 이하는 저신용, 665점 이상 839점 이하는 중신용, 840점 이상은 고신용으로 구분

16.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우수한 신용접근성 등으로 인해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컸으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계층의 대출 비중은 소폭 늘어난 반면 저신용 계층의 대출은 감소하였다. 23.2/4분기 기준 고소득 및 고신용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각각 66.8%, 73.2%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잔액은 적지만 2018년 이후 비중이 2.0%p(7.1%→9.1%) 확대된 반면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5.1%p(7.6%→2.5%) 축소되었다.

17. 한편, 차주의 신용이 낮을수록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83.6%(23.2/4분기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별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중소득자 계층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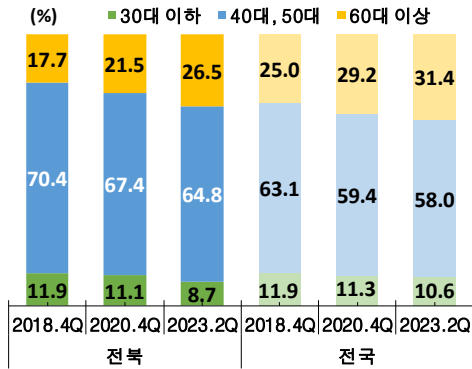


18. 연령별로는 40·50대의 대출잔액 비중이 가장 컸으나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60대 이상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지역 40·50대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23.2/4분기 기준 64.8%를 기록하며 30대 이하(8.7%), 60대 이상(26.5%)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8년말 이후 40·50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비중은 5.6%p 축소된 반면, 60대 이상은 8.8%p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동폭은 모두 전국(40·50대: -5.1%p, 60대 이상: +6.4%p)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연령대별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30대 이하(53.1%), 40·50대(57.8%), 60대(56.6%)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세부업종별로 보면 고연령층일수록 상호금융 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상호금융 대출 비중은 52.4%로 청년층(40.2%)과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잔액 비중은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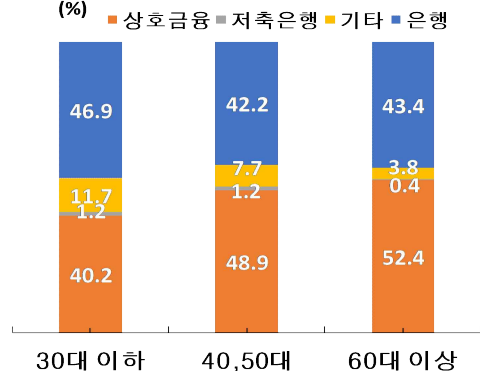
고령층의 높은 상호금융 대출 비중

<자영업자 대출잔액 연령별 비중¹⁾>



주: 1)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자영업자 대출 연령별 업권 비중¹⁾>



주: 1) 23.2/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5.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비중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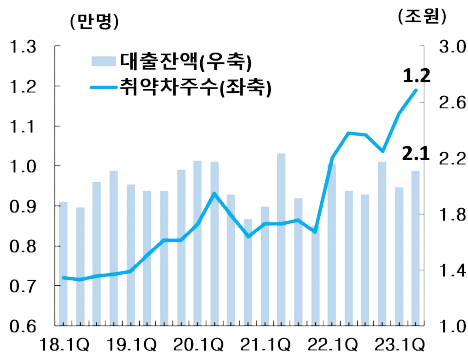
*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로 정의

19. 취약차주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취약차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결과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감소하였으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대비 비중도 축소되었다. 최근(23.2/4분기) 취약차주 자영업자의 수는 1.2만명으로 2018년말 대비 63% 증가하였으나 대출잔액의 경우 2.1조원으로 2조원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결과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1.8억원으로 전국(2.9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취약차주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대출잔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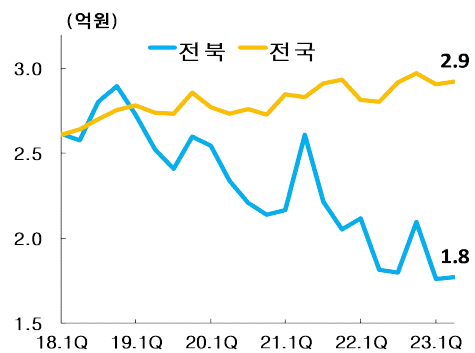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은 감소

<전북지역 취약차주 자영업자 수¹⁾ 및 대출잔액²⁾>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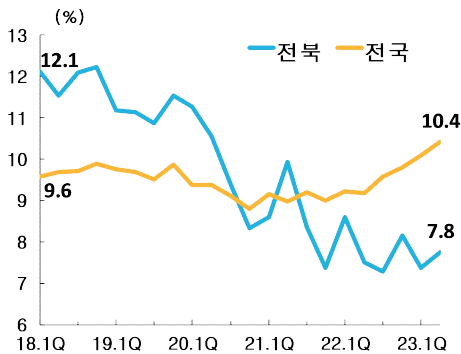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한편, 취약차주 대출잔액 비중은 18.1/4분기 12.1%로 전국(9.6%)을 상회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7.8%로 전국(10.4%)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취약차주 차주수 비중도 10.6%로 전국(11.9%)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취약차주 대출잔액 비중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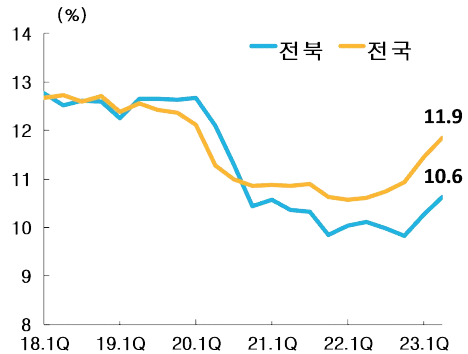
취약차주 차주수 비중은 축소

<취약차주 대출잔액 비중¹⁾>



주: 1) 자영업자 대출 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취약차주 차주수 비중¹⁾>



주: 1) 자영업자 차주 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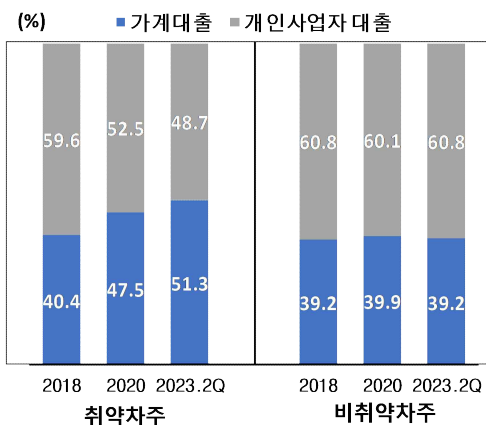
20.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비취약차주에 비해 높았으며, 동 비중은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은 2018년말 40.4%에서 23.2/4분기말 51.3%로 확대되었다. 반면 비취약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은 39.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가계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과 달리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은 확대

정부의 사업자대출 연착륙 지원 방안

<취약차주·비취약차주의 대출유형별 비중¹⁾>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주: 1) 말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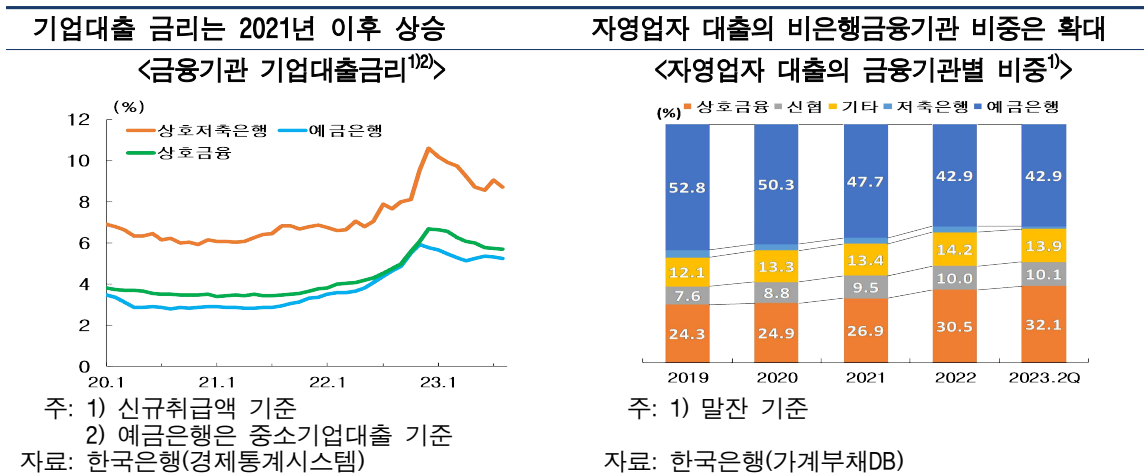
	내 용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20.3.31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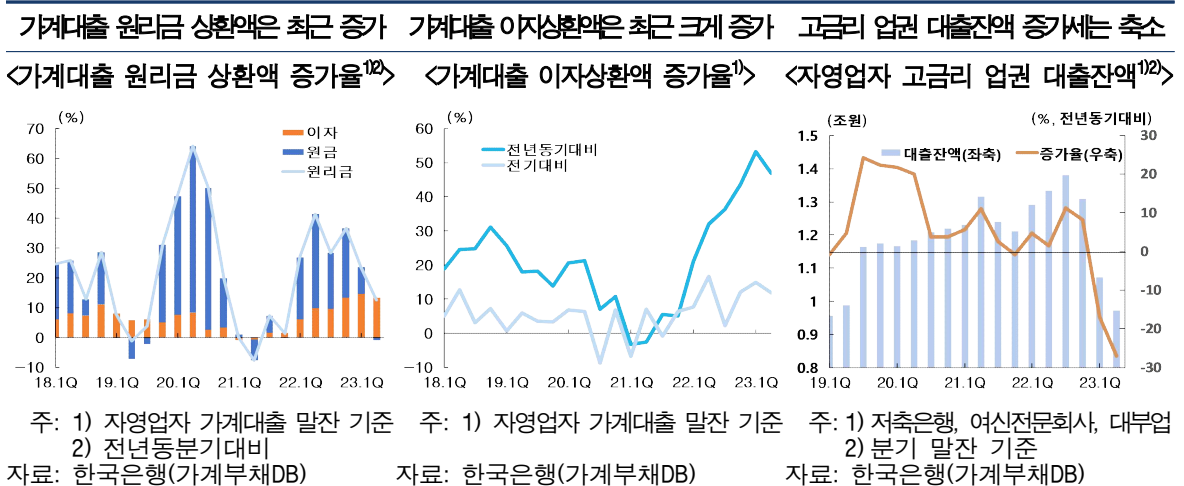
IV.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점검

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21.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2021년 이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대되었다. 금융기관 기업대출금리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말 정점을 찍고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확대는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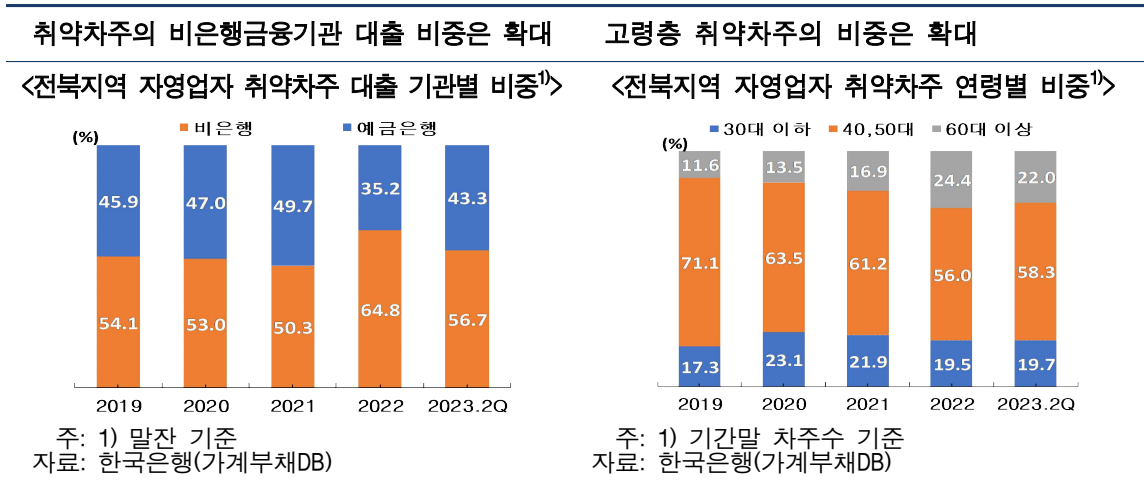


22.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액¹⁰⁾은 2021년말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원리금 지급액이 2021년말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 중 이자의 기여율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자지급액은 2018년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2021년말부터 늘어났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22.3/4분기 이후 고금리 업권에 대한 대출잔액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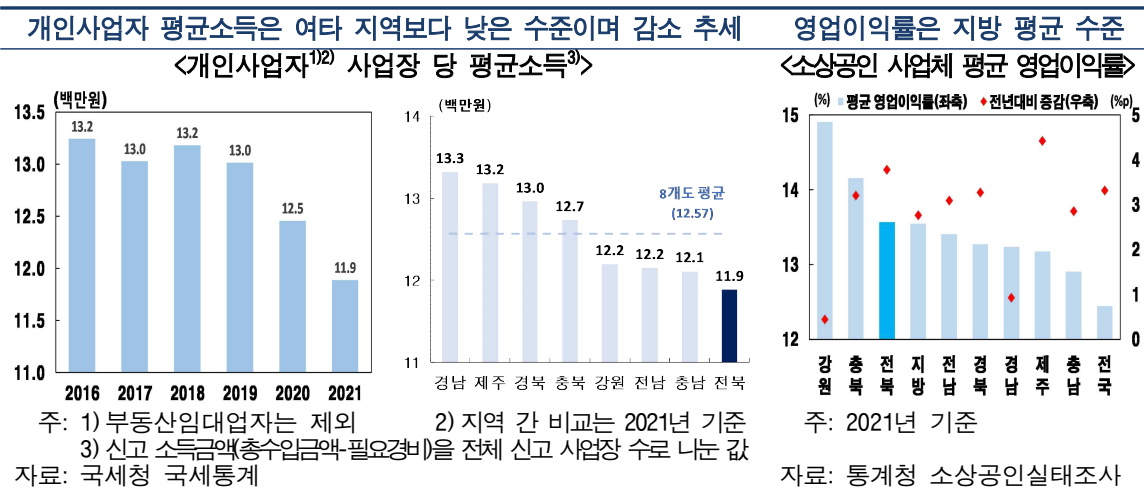


10) 사업자대출의 경우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액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가계대출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5. **취약차주의 대출 구성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협동기구¹¹⁾ 등 비은행금융기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었다.** 취약차주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2019년말 기준 54.1%에서 2022년말 64.8%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대출 잔액은 2019년말 기준 11.6%에서 2022년말 24.4%로 크게 늘었다. 고령층의 경우 소득증가 여력이 적어 향후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다만 취약차주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과 고령층 취약차주 비중 모두 2023년 들어 감소하며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6. **한편, 최근 전북지역 자영업자 사업장당 평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평균 소득¹²⁾은 2021년 기준 1,188만원으로 지방 평균(1,257만원)을 소폭 하회하였으며, 2018년(1,318만원)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3.6%(2021년 기준)로 지방 평균(13.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중 영업이익률은 3.8%p 증가하여 지방 평균(2.8%p)보다 높은 수익성 회복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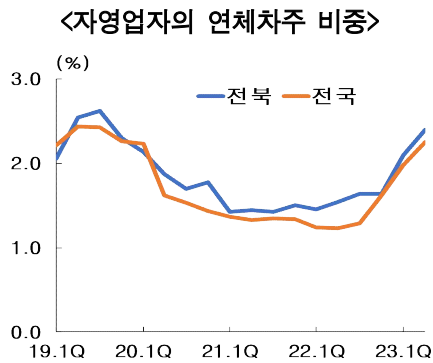
11)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등을 포함한다.
 12)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전체 신고 사업장수로 나눈 수치이며,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하였다.

3. 연체차주 비중*은 최근 상승

* 자영업자 차주 중 현재 30일 이상 연체이력이 있는 차주의 비중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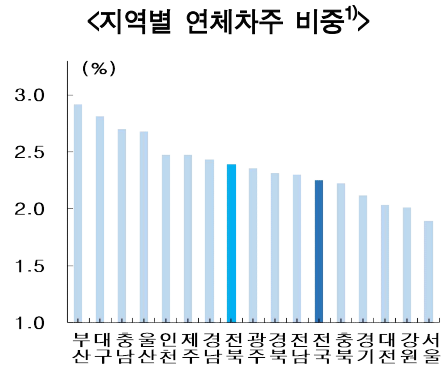
27. 자영업자 연체차주 비중은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연체차주 비중은 19.3/4분기 2.6%에서 22.2/4분기 1.5%까지 하락하였으나 올해 들어 전국과 유사한 흐름으로 확대되면서 최근(23.2/4분기 기준) 2.4%를 기록하였다. 전북지역 연체차주 비중은 17개 시도 중 여덟 번째로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연체차주 비중은 최근 확대



자료 : 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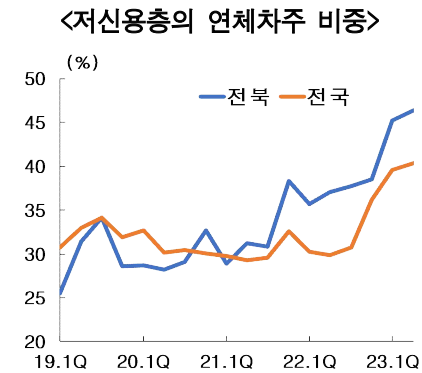
전북지역 연체차주 비중은 전국 대비 다소 높은 수준



주 : 1) 23.2/4분기말 기준
자료 : 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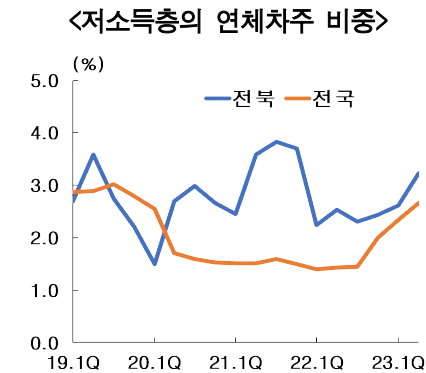
28. 차주 특성별로는 저신용층 내 연체차주 비중이 확대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저소득층 내 비중도 올해 들어 소폭 확대되었다. 저신용층 내 연체차주 비중은 21.1/4분기(28.9%) 이후 전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상승하여 23.2/4분기 46.4%를 기록하였다. 저소득층 내 연체차주 비중의 경우 전국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하면서 3.2%를 기록하였다.

저신용층 연체차주는 최근 상승



자료 : 가계부채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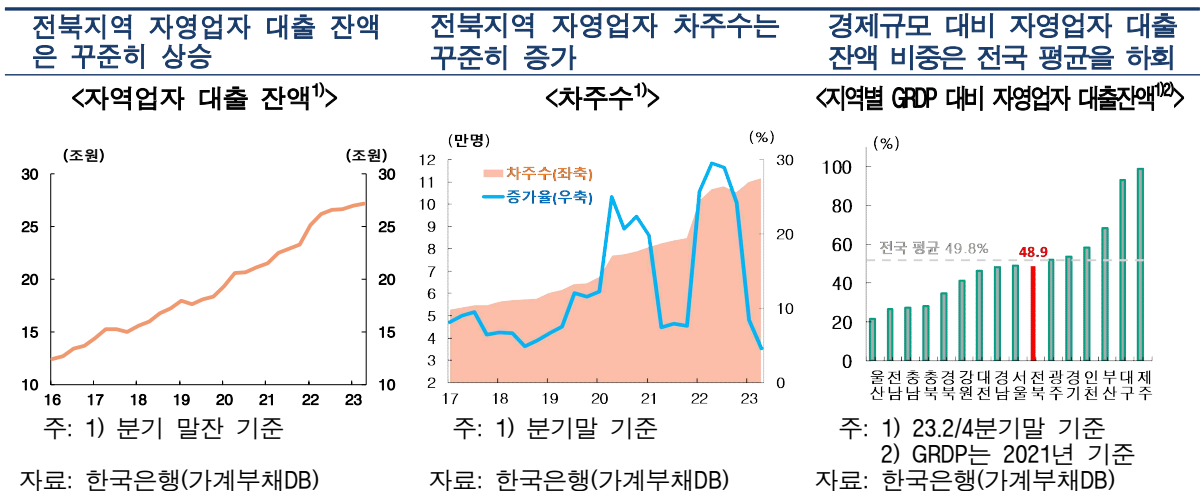
저소득층 연체차주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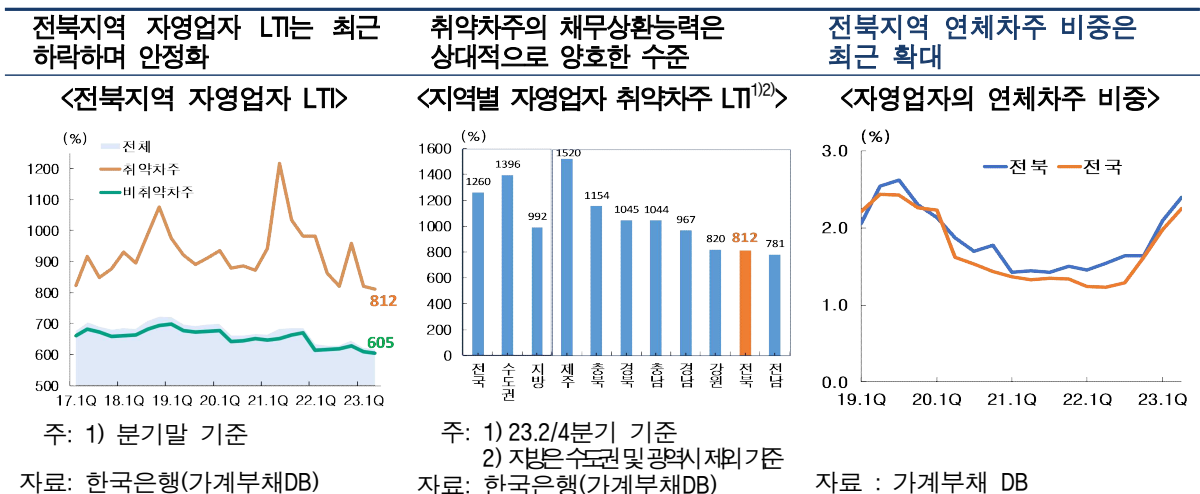
자료 : 가계부채 DB

V. 평가 및 시사점

29.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잔액과 차주수가 증가하였으나 지역 경제규모(GRDP 기준)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2년 중 연평균 13.3%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들어 확대세가 축소되었다. 전북의 GRDP 대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비율은 48.9% 수준으로 전국 평균(49.8%)을 하회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잔액이 증가하였으며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차주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비중은 축소되었다.



30. 전북지역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연체차주 비중이 상승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2018년 이후 하락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도 여타 시도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 및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연체차주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부채 관리

31. **역내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무재조정·대환 프로그램 등의 활용을 유도하여 개별 차주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연체차주 비중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부채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¹³⁾, '새출발기금'¹⁴⁾ 등을 활용한 채무재조정으로 자율적인 상환을 유도하고 금리·상환스케줄 조절 등으로 채무구조를 개선하여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리가 높은 대출상품 대신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각종 특례보증 상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의 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이용한 채무변제 계획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용 편의를 높여 자립계획 및 부채 정리를 지원하는 경우 자율적인 채무구조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2. **자영업자의 매출 등 경영상황, 보유자산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포괄적인 상환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DB는 대출 위주의 DB로 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설문조사 기반의 자료라는 한계를 갖는다. 자영업자의 매출 등 경영상황 및 보유자산 정보 등을 결합한 DB를 구축하는 경우 실질적인 채무 부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리스크관리, 채무상환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 관련 자료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각 정보를 보유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포괄적인 상환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33. **취약차주 등이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은 여타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쟁이 심한 상황이다. 정보 부족은 자영업자의 과밀업종 추가진입과 시장에서 심각한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보의 부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관련 정보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

13) 모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22.5월말 이전 취급분)을 대상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대환 한도 내에서 상환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부실차주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사업자대출·가계대출(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등 최대 15억원)에 대해 원금조정,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한다.

다. 먼저 지자체 앞 개인사업자 등록시 자영업자가 사업장 주변 지역 내 유사업장의 분포, 창업 및 휴폐업 현황, 생존율 등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시 신용평가사의 금융거래 정보 뿐 아니라, 상권분석 정보도 폭넓게 활용하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해야 한다. 나아가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자영업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창업 분야의 다각화를 유도해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34. 전라북도 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진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밀화된 대면서비스 자영업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온라인 판촉 등으로 전북지역 외 시장을 개척하고 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판매·마케팅 교육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근 소비패턴 변화 분석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운영 인터넷 플랫폼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홈쇼핑 판매 등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판매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자영업자 대출자금 활용의 실효성 제고

- 35.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대출자금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중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잔액 비중은 2018년말 이후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은퇴한 임금근로자의 생계형 창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령층의 소득기반 안정화를 위한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이전 직장경력을 활용한 창업을 장려하고 디지털 전환 등 업황 변화를 고려한 체계적 창업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금지원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9.1%), 저신용(2.5%) 차주의 낮은 대출잔액 비중을 고려할 때 한계 상황에 직면한 차주가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상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금융중개지원대출(C2)을 운용함에 있어 저신용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취약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36.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57% 가량이 도소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업종에 몰려있어 도내 금융자금의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지역 금융기관 모니터링 결과 사업자대출 수요의 일부 업종 집중으로 사업자대출 자체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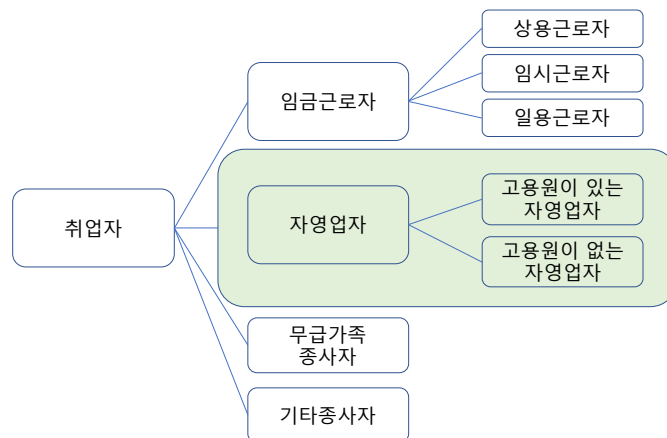
될 소지가 있는 만큼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폐업 및 사업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폐업 시 사업자대출의 일시상환 부담이 폐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상환이 가능한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보증·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과중한 부채부담을 확인할 경우 사업주를 폐업·재기 지원 및 신용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취업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 1>

자영업자의 정의

- 일반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총조사 등에서 종사상지위*에 따른 하위 분류로 조사되고 있음
 -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분
-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상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개인사업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
 - (개인사업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중 하나로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 혹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
- 본고에서는 자영업자 현황을 다방면으로 보기 위해 상기 용어들을 자영업자로 통칭하여 사용하되 이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분류



자료 : 통계청

<참고 2>

정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 ① **(현금지원)**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현금성 지원금을 직접 지급

구분	지원시기	지원금액(최대금액 기준)	총 지원규모	
재난 지원금	새희망자금	20.9월	200만원	2.8조원
	버팀목자금	21.1월	300만원	4.2조원
	버팀목자금플러스	21.3월	500만원	4.8조원
	희망회복자금	21.8월	2,000만원	4.2조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21.12월~ 22.6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36.8조원
손실보상금	21.10월~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80%), 1억(분기별)	7.5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② **(금융지원)** 대출 공급, 대출금리 인하, 특례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등을 시행

- **(유동성 공급)** 시중은행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관은 특례보증 및 신속·전액보증을 실시
-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5차례 기한 연장

구분	만료일	지원내용
최초 시행 (20.4월)	20.9월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1차 연장	21.3월말	
2차 연장	21.9월말	[적용대출] - 20.3.31일 이전에 취급된 기준대출 단, 가계대출 및 부동산업 대출 등 제외
3차 연장	22.3월말	
4차 연장	22.9월말	[금융회사] - 전금융권
5차 연장	25.9월말(만기연장) 23.9월말(상환유예)	[지원규모] - 최초 시행 이후 22.6월말까지 362.4조원 지원하였으며, 23.6월말 기준 차주 35.1만명, 대출잔액 76조원에 대해 지원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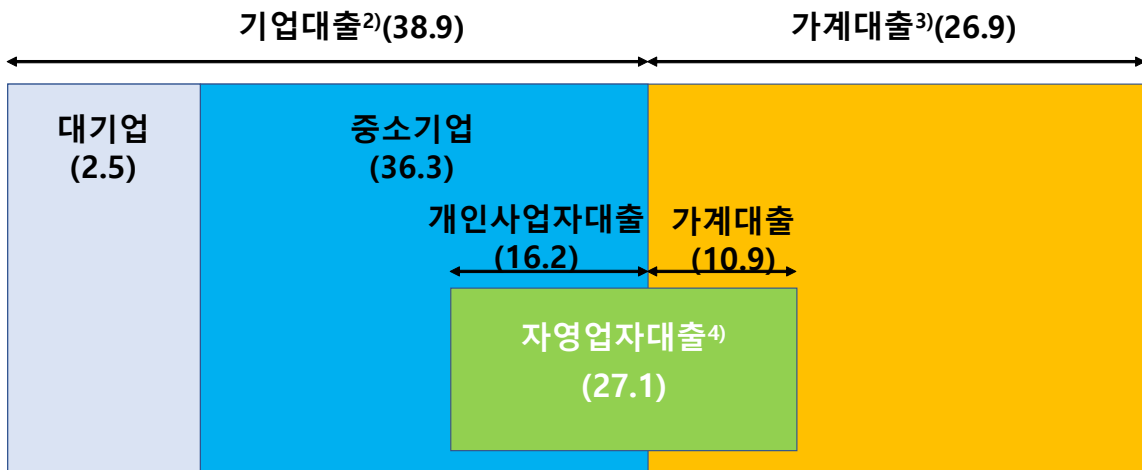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고 3>

자영업자 대출 이용통계 및 분석범위

- (이용통계)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100만여명의 개인별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수집(분기별)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한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활용
 - 표본 자료에 확대배율(표본비율의 역수)을 적용하여 모집단을 추정하였으며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대부업 등 넓은 범위의 비은행금융기관도 포함
- (분석범위) 가계부채DB 상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합을 자영업자 대출잔액으로 집계
 - 23.2/4분기말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7.1조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각각 16.2조원, 10.9조원으로 나타남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 구성¹⁾



주: 1) 2023년 2/4분기말 기준, () 내는 조원 2)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기준
3)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 기준 4) 가계부채DB 기준
자료: 한국은행

[참고문헌]

권기백, 정준호, 김주현, 2023, “강원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강원본부

금융위원회, 2022,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2023,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김수진, 조현명, 2019,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 과제”, 한국은행 전북본부

서정호, 이규복, 이기혁, 2019,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동향 분석"

양재운, 2023, “제주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제주본부

전성범, 김주리, 2023, “광주전남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전남본부

전제훈, 전은총, 2023, “충남지역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조윤구, 민상오, 2023, “제주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과 채무상환능력 평가”, 한국은행 제주본부

중소기업연구원, 2018, “중소기업정책연구(2018.6월)”

한국은행, 2022, “금융안정보고서(2022.12월)”

한재근, 2021,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